

콘텐츠@창조산업 동향과 이슈 : 지역 동향

+ 고양 지역문화 동향과 이슈



|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Keyword : '일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양시'?

고양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96만의 도시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큰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또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개발규제 과다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권역(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타 도시와는 다르게 제조업 중심이 아닌 3차 서비스산업의 편중화가 심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자유로, 제2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 고속철도 등 교통의 요지로서 국제적, 광역 접근성이 양호하고, KINTEX, 한류월드 등 전시, 문화, 관광 등 창조산업의 핵심지로서 충분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MBC, SBS,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의 전문 공연시설과 인접도시인 파주출판단지, 헤이리예술마을 등 문화·예술 산업 관련 인프라 연계성이 우수한 도시이다.

2013년 600년을 맞이하는 고양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데는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등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 이중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내년 2014년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설립 후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고양시와 진흥원이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방송영상산업 육성사업 인 '브로맥스'를 통해, 아시아 창조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상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Keyword : 2009년 브로맥스(BROMAX) 사업,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태동

2009년 고양시와 진흥원은 고양시가 처한 각종 규제에 의한 취약한 산업적 기반을 극복하고 자족기능 확보, 지역산업고도화의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브로맥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송영상육성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특히 방송영상기반 기업 유치를 통해 원스톱 영상후반작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였고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이하 빛마루)유치 등 인프라 시설 확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2010에 방송영상분야 기업집적 1위, 방통융합콘텐츠 기업수와 매출액이 각각 경기도 2위와 3위를 차지함으로써 방송영상 관련 허브로 성장 하였다.(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또한, 2010년 ‘차세대 음향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조성완료, 2012년 킨텍스 업무지구 내 ‘차세대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이하 스마트러닝센터)’ 개소, 2013년 올해 ‘빛마루’가 완공되었으며, 향후 EBS 디지털 통합사옥 조성까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의 제작기반 환경의 구축을 통해 관내 창조산업 생산 기반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 거점만 마련한다고 창조산업의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고양시는 다양한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준비하여 왔다. 고양시는 5대 전략육성산업군을 지정하여 각 산업군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국제통상과, 관광개발과, 방송영상통신과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한류관광중심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신한류홍보관’과 5월 ‘국제꽃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 성공리에 마감한 9월 ‘고양스마트영화제’, 10월 ‘호수문화축제’ 등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고양시 관내 콘텐츠 생산 기업의 대시민 향유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콘텐츠 판로개척을 위해 ‘경기영상펀드’와 ‘글로벌 콘텐츠시장 개척사업’의 운영으로 제작지원과 마케팅 활로 개척을 통해 관내 콘텐츠 생산기업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한중수교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서안시 곡강영화그룹과의 한중영화합작투자세미나 개최, 상호협력협약체결 등을 통해 대중국시장 진출로 확보에 성공하였고, 효과적인 글로벌 전시회·마켓 동반참여를 통해 고양시 도시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 동반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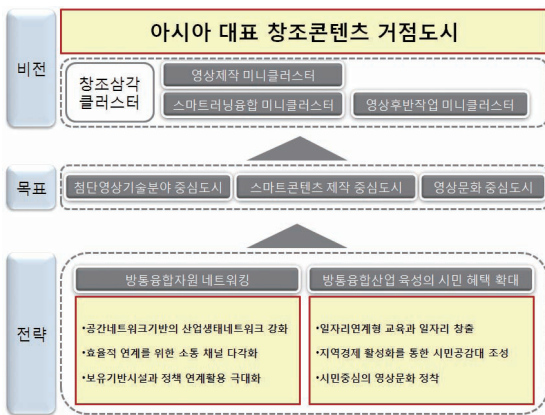
2012년 제 1회 한중영화합작투자세미나, 상호투자협력 MOU체결 자료 사진



Keyword : 환경의 변화, 그리고 창조산업과 콘텐츠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는 브로맥스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여파로 당초 계획 대비 민간부문 주도의 각종 개발사업과 방송영상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 덕은 미디어벨리, 삼송 미디어벨리 등은 구상단계로 끝나고 말았다. 덕은미디어벨리의 중심에 있던 후반작업클러스터 사업 축소로 일부 기업들의 이전 논의와 기업공간 축소 등 고양시와 진흥원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진흥원은 그간의 육성정책의 장점과 단점, 고양시를 둘러싼 내외 산업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로맥스를 재정의하고, ‘2009년 기본계획’의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2020 고양시 종합발전계획 수립(2012.09)’, ‘고양방통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12.12.브로맥스 2.0)’ 연구개발을 통해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Keyword : 브로맥스(BROMAX) 2.0,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고양시



그동안 고양시는 국내 최초로 방송영상통신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3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로케이션 협의체물 구성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대 수중 촬영세트인 ‘고양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불모지였던 한국영상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이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제작기업의 매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기존 브로맥스 사업의 성과는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종 국·도책 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 둘째, 방통융합 주요 시민시설 조성

과 기업 집적, 마지막 셋째는 방송영상콘텐츠 및 ICT산업이 고양시 대표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민간개발지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과 관련해 고양시와 경기도 등 공공부문의 직접개발 참여에 한계가 도출되어 왔다. 이에, 진흥원은 고양의 미래상을 첨단영상기술, 스마트러닝, 영상제작분야 대한민국 대표도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도시, 시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영상문화가 아이콘이 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장시간의 연구를 통해 ‘고양방통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브로맥스2.0)’ 정책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단계적인 추진을 진행해가고 있다.

브로맥스2.0은 기존 방송콘텐츠 융합클러스터의 공고화 및 내실화, 기업육성 프로그램 강화와 파급효과 확산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이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사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특성사업에 주력하고, 더불어 주요 핵심기반시설, 기업활동, 인적자원 연계, 커뮤니티 활동강화를 통한 협력, 방송영상문화 자변확대를 통해 지역내 콘텐츠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대표 창조콘텐츠 거점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 세가지 목표와 단계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고, 창조경제 시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기업의 생산기반 제공 및 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더욱 강화된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Keyword :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자. -명심보감-

고양시는 그동안 창조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쉬없이 달려온 도시이다. 진흥원은 그 수많은 결과물의 중심에 서있었으며, 고양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언제나 혼자 이룩한 것보다 함께 이룩한 보람이 크다는 것이며, 앞으로 고양시의 600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의 순간이 중요하다. 창조산업은 그 분야의 창의적사고 만큼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는 산업분야이다. 어느 산업보다 분업화가 되어있으며, 잘 만들어진 콘텐츠도 혼자만의 힘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고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의 극작가인 오웬 펠담의 명언 중 “가치있는 적이 될 수 있는 자는 화해하면, 더 가치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고양시와 인접하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클러스터가 존재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부천, 시네폴리스 산업의 중심 김포, 예술인 마을 헤이리와 출판영상복합단지를 준비하는 파주가 존재한다. 이들 도시마다 특색있는 산업육성전략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이러한 주변 산업 인프라를 하나로 엮는 허브의 역할과 융합거점의 역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고양시가 경기북서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고양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글로벌 신한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14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관내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브로맥스2.0’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국도비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구성원 모두가 하나됨의 노력으로 고양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인프라를 관내기업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본다. 인접 도시간의 동반상생과 광역권 중심도시들과의 유연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더욱 더 발전된 창조산업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픈된 마인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창조산업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통해 관내기업의 발전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고양 신한류홍보관 (NEW HALLYU GALLERY IN GOYANG)을 소개합니다.

고양 신한류홍보관은 고양시에서 촬영·제작된 한국을 대표하는 신한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가 제작 지원한 드라마, 영화를 비롯하여 한류스타테디 등 신한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진화를 꿈꾸는 고양시만의 한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오전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 단체 관람의 경우, 사전 예약 필요

관람료 : 무료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2층)

문 의 : 031-908-3236

페이스북 : facebook.com/hallyugallery

고양신한류홍보관 자료 사진

